

이 자료는 **즉시**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	2018년 5월 31일(목) (총 9쪽)	담당부서	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
		담당자	최난주 팀장 (043-880-5421) 조지영 대리 (043-880-5425)

무좀약 등,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사고 주의

- 용기 형태 유사해 시력 좋지 않은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다발 -

최근 시력교정 등 안과수술이 보편화되고 미세먼지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안구 건조증 환자가 늘면서 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. 한편, 안약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의약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을 안약으로 오인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, 화상 등 안구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.

최근 3년간(2015년~2017년)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*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33건**에 이른다.

*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,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(CISS :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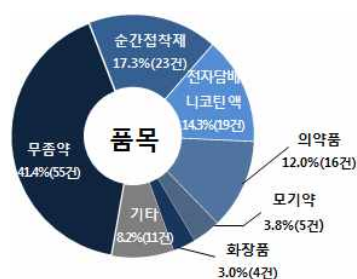
** 연도별 현황 : '15년 45건 → '16년 51건 → '17년 37건

□ 여름철,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 가장 많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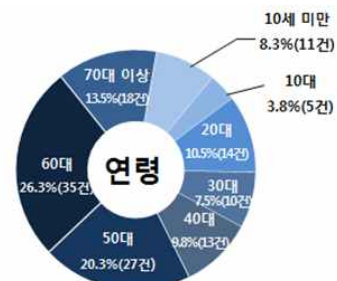
오인 품목은 '무좀약'이 41.4%(55건)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순간접착제' 17.3%(23건), '전자담배 니코틴액' 14.3%(19건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이들 제품은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감, 결막충혈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시력 저하 또는 이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.

연령별로는 '60대' 26.3%(35건), '50대' 20.3%(27건), '70대 이상' 13.5%(18건) 등의 순으로,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0.1%를 차지했다.

[품목별 현황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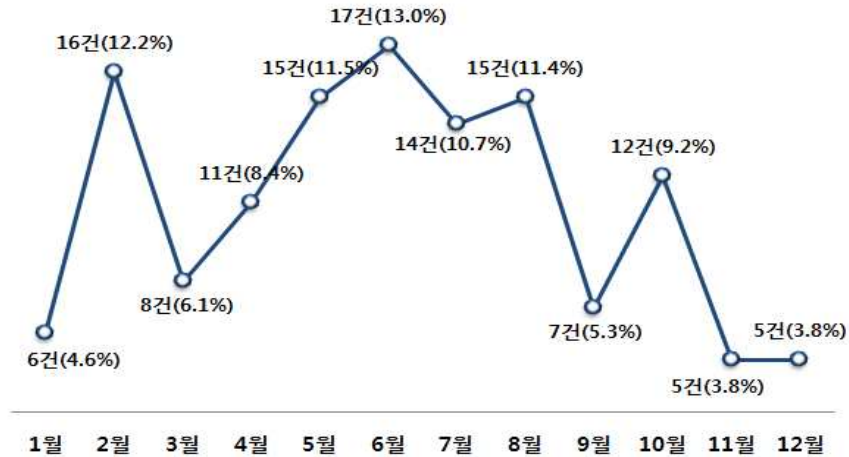
[연령별 현황]



연령대별로 다발 오인품목에 차이를 보였는데, '20대~30대'에서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이 가장 많은 반면, '40대 이상'에서는 무즙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해당 제품의 접촉빈도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.

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131건을 분석한 결과, 미세먼지가 많고 건조한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'여름(6~8월)'이 전체의 35.1%(46건)로 가장 많았다.

[발생시기별 현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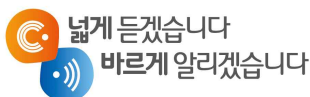


□ 무즙약 등, 용기 형상이 안약과 유사해 오인 사용할 우려 있어

무즙약, 순간접착제, 전자담배 니코틴액 등 주요 오인품목* 10종의 용기 형상을 확인한 결과, 용기 형태 및 크기, 입구, 개봉방식, 내용물의 색상 등이 안약과 유사했다. 또한,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가 대체로 작아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, 안과수술 환자들이 오인 사용할 우려가 있었다.

* 무즙약 4종, 순간접착제 3종, 전자담배 니코틴액 3종(총 10종)

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▲의약품은 원래의 용기와 종이상자에 그대로 넣어 생활화학제품과 분리 보관할 것 ▲사용 전 반드시 제품명을 확인할 것 ▲저시력 환자가 안약을 사용할 때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. 또한, 눈에 잘못 넣었을 때는 즉시 물이나 식염수 등으로 씻어낸 후 해당 제품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해 눈의 손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.

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www.kca.go.kr



< 붙임 >

1 안약 오인 점안사고 분석 결과

□ (현황) 최근 3년간 총 133건 접수

- 최근 3년간(2015년~2017년)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2015년 45건, 2016년 51건, 2017년 37건으로 총 133건임.

[연도별 현황]

구분	2015년	2016년	2017년	합계
건수(건)	45	51	37	133
증감률(%)	-	13.3	△27.5	-

□ (품목별) '무좀약'을 안약으로 오인한 사고가 가장 많아

- 오인 품목은 '무좀약'이 41.4%(55건)로 가장 많았고, '순간접착제' 17.3%(23건), '전자담배 니코틴액' 14.3%(19건), '의약품' 12.0%(16건) 등으로 나타남.
- 안약은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든 점안액이나 짜서 바르는 튜브형 연고제 형태로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데, 무좀약, 순간접착제, 전자담배 니코틴액의 경우 안약과 용기 형태 등이 유사해 다발품목의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됨.

[품목별 현황]

구분	건수(건)	비율(%)
무좀약	55	41.4
순간접착제	23	17.3
전자담배 니코틴액	19	14.3
의약품*	16	12.0
모기약	5	3.8
화장품	4	3.0
기타**	11	8.2
합 계	133	100.0

* 여드름치료제, 소독약, 천식치료제 등

** 오일, 렌즈세척제, 방향제 등

□ (연령별) '50대 이상 고령층'이 전체의 60.1% 차지

- '60대'가 26.3%(35건)로 가장 많았고, 이어 '50대' 20.3%(27건), '70대 이상' 13.5%(18건) 등의 순으로 나타남.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60.1%로 이는 근거리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노안으로 인해 안약과 비슷한 용기의 제품을 안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.

[연령별 현황]

구분	건수(건)	비율(%)
10세 미만	11	8.3
10대	5	3.8
20대	14	10.5
30대	10	7.5
40대	13	9.8
50대	27	20.3
60대	35	26.3
70대 이상	18	13.5
합계	133	100.0

- 연령대별로 오인 다발품목에 차이를 보였는데, '20대~30대'는 전자담배 니코틴액의 비중이 각 50.0%로 가장 높았고, '40대 이상'은 무좀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(40대 30.8%, 50대 51.9%, 60대 74.3%, 70대 이상 33.3%).

[연령대별 다발품목 현황]

구분	상위 다발 품목
10세 미만	① 전자담배 니코틴액, 의약품(각 3건/27.3%) ② 모기약(2건/18.2%)
10대	① 순간접착제, 전자담배 니코틴액, 모기약, 기타생활화학제품, 렌즈세척제(각 1건/20.0%)
20대	① 전자담배 니코틴액(7건/50.0%) ② 무좀약, 화장품(각 3건/21.4%)
30대	① 전자담배 니코틴액(5건/50.0%) ② 무좀약, 의약품, 모기약, 기타생활화학제품(각 1건/10.0%)
40대	① 무좀약, 의약품(각 4건/30.8%) ② 순간접착제(3건/23.1%)
50대	① 무좀약(14건/51.9%) ② 순간접착제(7건/25.9%)
60대	① 무좀약(26건/74.3%) ② 순간접착제(5건/14.3%)
70대 이상	① 무좀약, 순간접착제(각 6건/33.3%) ② 의약품(5건/27.8%)

□ (시기별) 3월부터 증가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

- 발생시기가 확인되는 131건을 분석한 결과, '여름(6월~8월)'이 35.1%(46건)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봄(3월~5월)'이 26.0%(34건)를 차지함.
- 미세먼지가 많고 건조한 봄철에 안약 사용이 늘면서 오인 사고건수도 3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.
- 이는 '건강보험심사평가원' 안과용제 의약품 사용금액 통계(2015년~2017년)의 계절별 추이*와 비슷한 양상임.

* 해당 자료에 따르면 봄철 360,331백만원, 여름철 364,000백만원, 가을철 352,133백만원, 겨울철 324,225백만원으로 집계됨.

□ 주요 사례

무좀약	○ 2015년 3월 A씨(50대, 남)는 액체로 된 무좀약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안구 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음.
순간접착제	○ 2016년 11월 B씨(80대, 여)는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안구 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음.
전자담배 니코틴액	○ 2017년 1월 C씨(20대, 여)는 전자담배 니코틴액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안구 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.

2

오인사고 다발제품 조사 결과

조사개요

- 조사대상 : 무즙약 4종(액상형 2종·튜브형 2종), 순간접착제 3종(액상형 2종·튜브형 1종), 전자담배 니코틴액 3종 등 총 10종
 ※ 위해사례 다발 상위 3개 품목군 중 오인사고 발생 제품 및 기타 안약 용기와 비슷한 외형의 제품 선정
- 조사내용 : 점안액 및 안연고 형태의 안약과 용기 형상 비교

□ 용기 형상이 안약과 유사해 오인 사용 우려

- 조사대상 무즙약, 순간접착제, 전자담배 니코틴액 10종의 용기 형태 및 크기, 입구, 뚜껑 형태, 개봉방식, 내용물의 색상 등이 안약과 유사해 혼동할 우려가 있었음.
- (무즙약) 액상형 무즙약의 경우 주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는 안약과 달리 유리병으로 되어 있고 뚜껑에 브러시가 달려 있었으나, 전체적으로 볼 때 용기 형태 및 크기, 내용물의 색상 등이 안약과 유사함.
- (점안시 위해성) 자극감, 결막충혈, 시야흐림, 이물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, 화상정도가 심할 경우 시력저하, 이차 감염이 우려됨(안과전문의 자문).

[점안액 형태의 무즙약 비교]

뚜껑 개봉 전		뚜껑 개봉 후	
			
무즙약	안약	무즙약	안약

[안연고 형태의 무즙약 비교]

뚜껑 개봉 전		뚜껑 개봉 후	
			
무즙약	안약	무즙약	안약

○ (순간접착제) 용기 형태 및 크기, 재질, 입구 등이 안약과 유사해 오인 사용할 우려가 있었음.

- (점안시 위해성) 접착제 특성상 외안부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고, 제거 시 각·결막 찰과상 및 결손이 생길 수 있으며, 일시적인 자극감, 결막충혈, 시야 흐림, 이물감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(안과전문의 자문).

[점안액 형태의 순간접착제 비교]

뚜껑 개봉 전		뚜껑 개봉 후	
			
순간접착제	안약	순간접착제	안약

[안연고 형태의 순간접착제 비교]

뚜껑 개봉 전		뚜껑 개봉 후	
			
순간접착제	안약	순간접착제	안약

- (전자담배 니코틴액) 안약보다 약간 크기는 하나 용기 형태, 입구, 뚜껑 형태, 내용물의 색상 등이 안약과 유사해 오인할 소지가 있었음.
- (점안시 위해성) 일시적 상피독성으로 인한 자극감, 결막충혈, 시야흐림, 이물감 등이 있을 수 있고, 누점을 통한 전신 흡수가 있을 경우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음(안과전문의 자문).

[점안액 형태의 전자담배 니코틴액 비교]

뚜껑 개봉 전		뚜껑 개봉 후	
			
전자담배 니코틴액	안약	전자담배 니코틴액	안약

□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수칙

- 안약 점안 전 항상 처방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합니다.
-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원래의 용기와 종이상자 안에 안약을 보관합니다.
- 의약품 보관함을 만들어 의약품이 아닌 것(예 : 접착제, 전자담배 니코틴액 등)과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.
-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안약을 처방받지 않도록 하고, 남은 안약을 장기간 보관하며 자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저시력 환자가 안약을 사용할 때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점안합니다.

□ 사고 발생시 조치요령

- 눈에 들어간 즉시 물, 식염수, 평형염액* 등으로 충분히 세척하고 바로 응급실이나 안과를 방문하여 안과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* 조직액과 삼투압이 같아지도록 조합된 생리적 염류용액
- 특히, 접착제를 점안한 경우 접착제 덩어리를 무리해서 제거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과 진료 후 제거하도록 합니다.
- 의료진이 잘못 점안한 물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오인한 제품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합니다.

(누네안과병원 각막센터 최태훈 원장 자문)